

‘불펜 다크호스’ 김민주 “아쉬움, 존재감 발휘 기회로”

KIA타이거즈 선수단 을사년 출사표



“몇 번을 생각해도 아쉬움뿐인 것 같아요. 올해

는 건강한 모습으로 불펜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신인임에도 정식 선수 등록과 프로 데뷔까지 이뤄낸 KIA타이거즈 투수 김민주가 새해에는 발전된 모습을 희망한다. 올해는 건강한 모습으로 과정과 결과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다.

김민주는 최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아쉬움이 크다. 시즌이 끝나고 여러 번 생각했고 지금 돌아봐도 아쉽다는 생각뿐”이라며 “퓨처스리그에서 첫 등판을 하자마자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기를 재활군에서만 보냈다. 첫 시즌을 날린 느낌이라 안타까움이 크다”고 지난 시즌을 복기했다.

배명고와 강릉영동대를 나온 김민주는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 6순위(전체 66번)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KIA는 1라운드인 투수 조대현, 3라운드인 포수 이상준과 함께 김민주를 정식 선수로 등록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범호 감독은 호주 캔버라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스프링 캠프 명단에 신인인 김민주와 조대현을 발탁하기도 했다.

김민주는 시범경기에서도 세 차례 등판 기회를 받으며 든든한 지원을 받았다.

김민주는 “스프링 캠프와 시범경기 때는 몸이 괜찮았다. 개막하고 퓨처스리그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 하위 지명 불구 정식 선수 등록 확장 엔트리로 프로 데뷔 성사 올해는 새 옵션으로 발전 목표

에서 처음 등판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통증이 느껴졌다”며 “크게 아프지 않아서 완벽히 괜찮아지고 다시해보자는 생각으로 재활군에 갔는데 통증이 이어지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고 회상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시련을 딛고 일어났다. 후반기에 전력에 복귀해 차근차근 준비한 뒤 확장 엔트리가 시행되는 9월에는 전력에 가세했다. 두 차례 구원 등판 기회를 받았고 1이닝을 소화하며 2실점(1자책점)을 기록했다.

그는 “후반기에 1군에 등록되고 등판 기회도 받았지만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실전



KIA타이거즈 김민주가 지난해 9월27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원정 경기에 구원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등판을 하게 되면 결과를 떠나서 내용을 스스로 복기하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등판과 함께 시즌이 끝나버렸다”고 언급했다.

새 시즌 목표는 철저한 준비로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내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제는 부상이 없도록 철저히 건강 관리에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선수층 강화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김민주는 “비시즌을 광주에서 보내고 있다. (이)의리랑 (윤)영철이랑 서로 도와주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며 “저보다 프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배우고 있다.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폼이 역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다칠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구속은 늘리고 부상 위험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던질 때 힘을 어떻게 쓰는지, 자세를 어떻게 교정해야 하는지도 얘기를 나누며 다치지 않도록 확실히 몸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마운드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팔꿈치 수술을 받은 이의리의 복귀 전까지 황동화와 김도현이 선발 경쟁을 펼치고, 불펜 강화에 성공하며 임기영과 이준영, 김기훈, 박도규, 최지민, 조상우, 전상현, 정해영 등 빈틈없는 라인업이 구축됐다. 유승철과 유지성, 이형범, 김대우, 윤중현, 박준표 등도 준비하고 있다.

김민주는 “안 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만 잘 유지된다면 작년보다 훨씬 나은 시즌을 보낼 것”이라며 “개막 엔트리에 포함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제 야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잘 준비해서 팀이 어려울 때 기회를 잡아서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한국시리즈 때 집에 누워 있는데 함성이 정말 크게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마운드에 올랐다면 어떤 공을 던지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생각해 보고 다음엔 꼭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올해는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다. 모두의 믿음에 결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FC 10년 차’ 이민기, 새 시즌 주장 선임

부주장에는 이강현·김진호 “높은 곳 향해 책임 다할 것”

광주FC 입단 10년 차를 맞는 ‘원클럽맨’ 이민기(사진)가 새 시즌 팀의 중심축 역할이 될 주장에 올랐다. 이민기를 보좌할 부주장으로는 이강현과 김진호가 힘을 보탠다.

광주FC는 2025년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와 K리그1, 코리아컵 등 3개 대회에 나서는 선수단을 이끌 주장에 수비수 이민기, 부주장에는 미드필더 이강현과 수비수 김진호를 각각 선임하며 주장단 구성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민기는 여의도고-전주대를 거쳐 2016년 광주FC에 입단한 뒤 올해로 10년 차를 맞는 원클럽맨이다. 그는 상주상무FC(현 김천상무FC) 소속으로 군 복무에 임한 2018~2019년을 포함 K리그 통산 179경기를 소화하며 4득점과 7도움을 기록했다.

이민기의 리더십은 지난해 부주장으로 활약하며 충분히 입증됐다. 그는 적극적이고 온화한 소통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수단에 귀감이 됐고, 올해는 주장으로 승격하며 팀의 중심축이 됐다.

이강현은 2023년 인천유나이티드에서 광주FC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그는 2



광주FC가 2025년 주장에 수비수 이민기(가운데), 부주장에 이강현(왼쪽)과 김진호(오른쪽)를 각각 선임하며 주장단 구성을 마쳤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년 동안 활기찬 성격을 바탕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으며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적응과 단합을 도울 적임자로 평가 받았다.

김진호는 지난해 강원FC에서 광주FC로 이적하자마자 김경민, 정호연과 함께 팀에서 가장 많은 36경기를 소화하며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될 올해 베테랑과 신예들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신임 주장 이민기는 구단을 통해 “원클럽맨으로서 주장 완장까지 차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통해 광주FC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

‘전남 산악 간판’ 이영건,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1차 대회 금

리드 부문서 쾌거

‘전남 산악 간판’ 이영건(월출마당산악회·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이 안방에서 열린 2025 UIAA(국제산악연맹)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새 시즌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영건은 지난 10~12일 경북 청송아이스클라이밍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리드 남자부에서 모하마드 레자 사프다리안(이란)과 벤자민 보스하르트(스위스) 등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예선에 나선 이영건은 58명 중 5위를 차지하며 상위 16명에 주어지는 준결승 티켓을 확보했고, 준결승에서는 16명 중 7위로 상위 8명에 진입해 결승 진출을 이뤘다. 이어 결승에서 끝내 선두를 탈환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는 리드와 스피드 종목에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스클라이밍 선수 27명을 비롯해 18개국에서 112명이 참가했다. 특히 아시아선수권대회를 겸해 진행된 이영건은 한 번에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영건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은 월드컵과 아시아선수권을 합쳐 여섯 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월드컵에서는 이영건과 함께 차유진(차클라이밍)이 스피드 여자부



전남 산악 간판 이영건(월출마당산악회·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이 지난 10~12일 경북 청송아이스클라이밍경기장에서 열린 2025 UIAA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1차 대회 리드 남자부 경기를 펼치고 있다. 대한산악연맹 제공

동메달을 차지했다.

아시아선수권에서는 이영건과 함께 신운선(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이 리드 여자부 금메달, 차유진이 스피드 여자부 은메달, 김민철(경일대 OB산악회)이 리드 남자부 동메달을 수확했다. 한규빈 기자

한편 이영건은 오는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전을 겸하는 대회로 이영건이 태극마크를 새길지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